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논산시의회는 이번 의원 불륜설과 관련하여 6월 8일 10시, 의원 긴급간담회를 통해 다섯 명의 의원님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논산시의회 의원의 불륜설은 발견할 수 없어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첫째, 논산시의회 남성 의원(9명) 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의혹의 당사자로 밝혀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둘째, 논산시의회 남성 의원(9명)의 가족(부인, 자녀 등)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번 의혹은 사업관계로 3 ~ 4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혹은 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의원, 가족, 상대자 등을 다양하게 접촉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의혹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시시비비되지 않고 의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과 통하는 열린의정을 펼치는 논산시의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아울러, 논산시의회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자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의회 진상조사단 일동